

動的 概念과 靜의 概念(제3회)

金基錫

進化論에 對하야

進化論은 살아가는 것을 엮히는 것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물고 찢고 헤여지는 것으로 가르친다. 生物이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자기를 生物아닌 것으로부터 구별하나니 살아가는 일이란 무엇인가. 살아가는 일이란 자러나는 일이니 자러나는 일이 生物의 世界에 있어 서서의 基本原理가 아니면, 아니 된다. 生物은 어떠한 하야서 자러나는 것인가. 生物속에는 남을 물고 뜯어서 살아가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生物의 世界는 얼마나 넓은 領域에 뻗쳐서 모이고 엮히고 서로 붙들어주는 눈물겨운 事實이 별어져 잇는 것인가. 生物의 進化를 말하려는 이들이 싸움하는 것이 生存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見解에 붓 잡히지 않는 한에서 그들은 이 지극히 嚴肅한 事實을 事實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안혀서는 아니 된다. 우리들은 生物이란것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살아가는 일이란 자러나는 일ियो. 자러나는 일이란 모이고 엮히고 서로 붓들어 주는 일이라고 보았다. 삶의 原理란 集團의 原理, 全體의 原理이기 때문이다. 갈리여서 살아가는 個體가 잇고 떨어져서 자러나는 部分이 잇는가. 生物이란 것이 모여야 하고 엮혀야 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모이는 것에 있어서 잇기 때문이니, 모이는 것은 다시 엮히는 것에 있어서 엮히는 것은 다시 서로 붓들어 주는 것에 있어서 잇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生物이란 서로 이끌어 주고 붓 들어주는 것이다. 이 러케 보는 것이 生物에 대한 가장 진실한 理解가 아닐가. 生物이 서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存在란것이 서로 열매여 잇다는 存在者에 대한 基本直觀을 生物의 우에서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안는다.

辨證法은 限定의 論理

進化論이 生物學에 있어서 싸우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동안에 辨證法은 哲學에 있어서 發展하는 것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오늘의 現實主義에서 進化論과 辨證法을 배운 이 世紀의 사람들은 모도를 이

싸움의 原理發展의 原理에서 說明하려고 한다. 사람은 辨證法을 存在의 論理라고한다. 存在란 時間에 있어서 부단히 움직이면서 잇는 것을 이름이니 辨證法을 存在의 論理라고 보는 것은 辨證法을 運動의 論理라고 보는 것이 된다. 辨證法을 運動의 論理로 본다고 하면 움직임을 싸움으로 보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다시 鬪爭의 論理로 規定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進化論은 싸움의 事實을 내여노코 辨證法은 싸움의 論理를 내여노아 自然에서 싸움을 찾고 사람에게 싸움을 권하는데서 오늘의 現實主義는 나아가는 現實主義가 아니라 덤비는 現實主義로 덤비는 現實主義가 아니라 뒤트는 現實主義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辨證法은 본대 運動의 論理는 아니었다. 『파르메니데스』가 『存在하는것은 存在하는것이오 存在하지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을 때, 우리들은 『파르메니데스』가 이이命題에 있어서 運動이 아니라 性格을 말한 것이라고 보지 안흐면 아니 된다. 運動의 論理가 아니라 性格의 論理, 限定의 論理를 말한 것이라고 보지 안흐면 아니된다. 우리들은 무엇이 있다고 한다. 무엇이 잇다는 것은 무엇이 存在한다는 것이니, 存在한다는 것은 時間에 있어서 부단히 움직이면서 잇다는 것이다. 부단히 움직이면서 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것에 대하여 자기를 限定하지 안는 한에서 그것은 어떤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存在하는 것과 存在하는것의 性格을 구별하지 안흐면 아니 된다. 存在하는것이 時間에 있어서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運動의 論理요, 그것이 다른 것으로 부터 자기를 限定하면서 잇다고 보는 것이 限定의 論理인것이다. 眞理의 認識을 그 課題로하는 哲學의 품에 안겨서 辨證法은 본대 運動의 論理로서가 아니라 限定의 論理로서 옛던 빛나는 길에 오르려던 것이었다.